

석유화학 주식투자 의견 “중립”

서울증권, 재고물량 넘쳐 가격하락 지속 ... 2Q 실적은 감소할 듯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투자는 2003년 하반기 이후 경기상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증권 남부원 에널리스트는 미국-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석유화학기업의 투자의견으로 <중립>을 제시했다.

최근의 석유화학제품 가격급락은 전쟁 직전인 2003년 초반의 가격급등과 완전히 대조되는 양상으로 국제유가 하락과 생산 플랜트의 정상 가동에 따른 공급증가, 제품 가격 하락을 예상한 바이어들의 구매 연기가 겹치면서 하락 폭이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전쟁 장기화를 예상하고 재고를 확대했던 중국 바이어들이 전쟁 종결과 함께 적정 수준 이상 쌓여왔던 재고를 방출하면서 중국의 로컬가격이 크게 떨어져 수입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아시아 석유화학제품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SARS 공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도 한국과 타이완의 재고 급증에 한몫을 하고 있다.

남부원 에널리스트는 2004년까지 이렇다 할 신증설이 없어 공급과잉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요위축을 전제로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또 1/4분기 석유화학제품 가격 강세로 석유화학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이나 2/4분기에는 가격하락과 1/4분기의 높은 원재료 가격이 반영되면서 매출 감소, 매출원가 증가현상이 나타나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의 주가도 그동안 시장 대비 큰 폭의 초과수익을 타나냈던 만큼 상승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투자는 2/4분기보다는 하반기 경기상승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28>